

화순전남대병원, 국립대병원 '전국 2위·비수도권 1위'

美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선정...전남대병원은 전체 27위 전 세계 30개국 의료 전문가 의견·환자 만족도 등 반영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신)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2025년 세계 최고의 병원-대한민국(World's Best Hospitals 2025-South Korea)' 분야에서 각각 27위와 17위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순위는 뉴스위크와 글로벌 조사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가 30개국 의료 전문가에게 받은 추천과 환자 만족도 등을 종합해 선정됐다. 평가에서 전남대병원은 75.45점을 받아 27위, 화순전남대병원은 76.09점을 받아 17위를 기록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 국립대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중 가장 높은 순위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호남지역의 권역 책임의



정신 병원장, 민정준 병원장

료기관으로 중증질환 치료를 도맡아 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은 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와 진료, 수술과 교육 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화순전남대병원은 '암은 서울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며, 지방에서 유일하게 성공암 전문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현재의 성과를 넘어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 암 진료의 질적 도약과 양적 확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PEOPLE

2025년 3월 4일 화요일



광양시산림조합, 나무시장 개장 내달 28일까지 운영

광양시산림조합은 최근 식수철을 맞아 2025년 나무시장을 개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조합청사 옆 양묘장에 개설된 나무시장은 오는 28일까지 운영되며 감나무, 살구나무, 복숭아, 자두 등 유실수와 인나무, 두릅나무 등 특용수, 조경수와 약용수 등 다양한 묘목을 판매한다. 또 나무시장에서는 묘목 외에 나무 재배에 필요한 고품비료와 퇴비도 마련돼 있다. 조합은 초보자들의 실수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지원을 배지, 묘목 선택요령, 올바른 식재 방법, 사후관리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나무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은 낮 12시까지, 일요일은 휴무다. 송백성 광양시산림조합장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우량 묘목을 공급해 최선을 다하고 조합원과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전남도립대학교는 최근 학생문화복지관 아트홀에서 신입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전남도립대, 2025년도 신입생 입학식 개최

드론기계학과 등 15개 학과 425명

전남도립대학교는 최근 학생문화복지관 아트홀에서 신입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신입생은 15개 학과 425명이다. 입학식에는 신입생과 가족, 장헌범 전남도립대 총장 직무대행,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 박종원 전남도의원, 박준범 담양군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공연 음악과 재학생들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연 입학식은 학사보고,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 선서, 장학증서 수여,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드론기계학과 최승근, 뷰디자인과 강수희 학생이 신입생 대표로 선선했다.

장헌범 총장 직무대행은 "대학 생활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글로벌 역량, 책임감의 3가지 핵심역량을 갖추기 바라며, 신입생들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하도록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립대학교는 국립목포대학교와의 통합을 통해 다양한 전공 융합과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립대는 학생들의 안정적 대학 생활을 위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무료 통학버스 운영, 구내식당 개선 등 학생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신입생들의 원활한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여수시는 최근 정기명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가졌다.

여수시 '바른 공직 실천' 청렴 다짐 결의대회

권익의 종합청렴도 향상 목표

여수시는 최근 정기명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갖고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2025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참여자들은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상향을 목표로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이전보다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을 기록했으며, 평가에서 나타난 부진 항목을 보완해 '2025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에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의 의견을 수렴해 부패 취약 분야를 도출하고 공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35개 시책이 담겼으며, 특히 정기명 시장이 청렴도 향상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노사가 함께하는 상호 존중 '청렴한 데이' △'청렴 UP, 부패 ZERO' 영상 제작 및 홍보 △고위공직자 주도 릴레이 청렴 메시지 전달 △반부패 법령·제도 홍보 캠페인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기명 시장은 "최근 일부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일로 행정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품위를 훼손하는 비위나 일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송원진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양농협, 5년 연속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명예의 전당' 헌액도

광양농협은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전국 농협 종합업적평가 시상식'에서 5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고 3일 밝혔다. 종합업적평가는 농협중앙회가 전국 1111개 농협을 대상으로 신용, 경제, 교육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농협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번 평가에서 광양농협은 1위를 차지, 5년 연속 영예를 누렸으며 1위 누적 5회로 '명예의 전당' 자리에 올랐다. 광양농협의 5년 연속 1위는 전남은 물론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으로 광양농협의 우수경영을 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조합원 3300명의 광양농협은 지난해 상호금융



예수금 8100억원, 대출금 6700억원, 로컬푸드 하나마트 매출 330억원 등 내실있는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허순규 광양농협 조합장은 "종합업적평가 5년 연속 1위 수상은 농협을 신뢰하고 사랑해주는 조합원, 지역민들의 성원과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고객들을 위해 더 큰 농협, 더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농촌관광서포터즈 체험 활동

담양 달빛무얼마을서 1박 2일 체험

농협 전남본부와 광주전남팜스테이마을협의회가 운영하는 '전남농협 농촌관광서포터즈 1기' 5개 가족이 최근 담양 달빛무얼마을에서 1박 2일간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정립하는 기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쌀장정 만들기, 대동방 만들기, 쌀조청을 곁들인 떡고치를 만드는 체험을 하며 농촌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 온 가족이 오손도손 함께 모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밥을 나누며 가족의 정을 쌓고 건강한 아침밥 먹기를 생활화하는 식습관의 중요성을 배우기도 했다. 체험활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에 적극 참여하며 부모님과 함께 먹는



아침밥에 즐거웠으며 인플루언서인 부모들은 쉽게 경험하지 못 하는 농촌체험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농촌관광서포터즈가 첫 활동을 시작해 팜스테이마을을 소개하고 농촌의 매력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인플루언서와 함께 아침밥 먹기 생활화와 농촌체험을 공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같은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성보급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봉사 함께 할 광주VIP라이온스클럽 회원=심신 건강한 남·여 환영. 문의(회장) 010-3223-4311. (총무) 010-3365-0065.

은세 (음력 2월 5일)

48년생 돈 문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60년생 관청일 날짜를 보니 조심하라
72년생 새로운 수입 중대 주위를 보라
84년생 문서 계약을 조심하라
96년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딪쳐 보라
51년생 연행으로 공이 무너질까 두렵다
63년생 부동산 안목을 갖도록 하라
75년생 늦었다고 생각 말고 다음을 준비하라
87년생 말을 귀담아들으면 득을 보리라
99년생 벋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라
54년생 약속 절대 이행되지 않는다
66년생 경험하지 못했던 일로 쓴 맛을 본다
78년생 배우자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라
90년생 하는 일이 미약하니 다음으로 미루라
49년생 귀하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일
61년생 짐작으로 판단한다면 큰 일 나겠다
73년생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
85년생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
97년생 이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낭패
52년생 다 끝난 일이 다시 불거질 것이다
64년생 자녀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76년생 거래 운이 들어오니 손대라
88년생 힘들더라도 차차 쉬워질 것이다
55년생 명분에 현혹된다면 곤란해 질것
67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기쁜 일이 생긴다
79년생 신중을 기하면 영예로운 일이 있는 날
91년생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라
57년생 빠짐없이 되찾아 봐야 할 때
69년생 귀하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81년생 한번 잃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날
93년생 재능이 있으니 이뤄질 것이다
58년생 전업이나 사업은 삼가하라
70년생 정도만 지킬 수 있다면 문제없다
82년생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94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다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50년생 도둑이 엿보고 있으니 대책을 세워라
62년생 훔치니 두려우니 침착함이 길하다
74년생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다
86년생 멀리있지 않고 가까운 데서 찾아라
98년생 직장은 원어도 불만이다
53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65년생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77년생 결부 시킬 필요없다
89년생 새로운 수입으로 배로 늘어 날것
56년생 나한테 돌아오는 대로 잡아 두라
68년생 벗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 것
80년생 메고려운 기교가 자연스럽다
92년생 돈 보다는 신용을 더 중요시 하라
59년생 호사다마도, 새옹지마로다
71년생 길사로 인해서 탄력이 붙겠다
83년생 그대로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95년생 손윗사람에게 부탁하지 해결된다